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the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Wood Printing Blocks in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

郭 東 和 (Kwak, Dong-Hwa)*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각수의 판각활동 |
| 2.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의 내용 및 구성 | 5. 결 론 |
| 3.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 및 규모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팔만대장경 중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을 대상으로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내용과 구성, 팔만대장경 조성 시 판각 및 판각의 규모, 판각에 참여한 각수와 참여 방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각수를 알아보고, 각수별로 판각한 글자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자술의 특징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을 바탕으로 하여 설일체유부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러 소승 부파들의 敎義와 불교의 역사까지 담고 있어 아비달마불교의 대백과전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장이 한역한 것으로 전체 200권의 구성이 8纏 43納息으로 되어 있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총 200권 2,271권이 고종 31년(1244)부터 32년(1245)까지 大藏都監에서 판각되었는데, 실제 판각된 면수는 총 4,434면으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약 569명의 각수가 판각에 참여하였다. 권1~110은 공동 참여 방식으로, 권111~200은 권별 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권별 분담 방식으로 참여한 각수 91명은 한 사람이 평균 10판 이상을 판각하고 있는데, 판각량으로 보아 판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문 각수로 여겨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판각의 특징 및 성격을 알아보고자, 阿·心·沙·彼·道·觀·後·佛·我·初의 10개 글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자술의 특징 및 성격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각각 다른 각수가 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글자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글자 배자의 균형, 점을 찍은 모양, 삐침의 형태, 꺾이는 획의 모양에 따라 각수별로 판각의 습관이나 각자술의 정교도 및 우열을 가늠할 수 있었다.

要語: 고려 팔만대장경,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각수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연구원(kdh4172@hansung.ac.kr)

접수일: 2010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to study the engraving of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of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 the following topics are examined: the content and layout of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the scale of work to engrave the Tripitaka, the participating engravers and their activities, the leading engravers, and the distinguishing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ngraver's workmanship,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letters carved by each artist.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is called the great encyclopedia of Abhidharma Buddhism because it explains in detail the theory of Seolilcheyubu based on the *Abhidharma-jñāna-prasthāna-śāstra*, and contains the dogma of various Hīnayāna Buddhist schools as well as the history of Buddhism. I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Hyeonjang and is composed of 8 chapters(蘊) and 43 verses(納息) in 200 volumes.

A total of 2,271 woodblocks of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in 200 volumes were engraved during the 31st and 3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1244-1245). About 569 engravers participated in engraving 4,434 sides of woodblocks, although some took part more than once. Volumes 1~110 were carved in cooperation by several engravers, while each volume of Volumes 111~200 was carved by one engraver. 91 engravers solely in charge of carving one volume carved an average of 10 blocks and 20 sides. With such amount of work, they are assumed to be the expert engravers, largely responsible for carving the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In this research, these 91 engravers were investigated, and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carving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mparison of 10 letters, that is, 阿·心·沙·彼·道·觀·後·佛·我·初.

It is concluded that different engravers carved most of the letters in similar shapes with only slight differences in their size and the thickness and slant of the strokes. Furthermore, factors such as the balance of the letter arrangements, the way the dots were made, the shape of the ending strokes, and the way the strokes bent all evidenced the individual engraver's working habit, and his level of craftsmanship and superiority.

Key words: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
Abhidharma-mahāvibhāsā-śāstra, engraver

1. 서론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고종 18년(1231) 8월 몽고의 침입으로 이듬해 6월 강화로 수도를 옮긴 후 반몽항쟁의 일환으로 서원을 발하여 조성한 것으로, 당시 무신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우(崔瑀 또는 崔怡)의 주도 하에 고종 23년(1236)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고종 24년(1237)부터 판각을 시작하였다. 이후 최우의 처남인 鄭晔이 남해에 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하면서 고종 32년(1245)부터 35년(1248)까지 더욱 활발하게 개관이 이루어졌으며 고종 38년(1251)에 약 16년에 걸친 판각사업이 마무리 된다.

팔만대장경은 그 경관의 규모와 내용이 연구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수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장목록에는 1,524종 6,569권, 일제강점기 印經 기준으로는 1,512종 6,819권 총 81,258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장 1,497종 6,558권, 보유정장(부장) 4종 150권, 총 81,258매, 동국대학교 영인본은 1,514종 6,812권, 총 80,280매(160,560)라고 제시하고 있다.¹⁾ 대장경관의 규모에 대한 수치 제시는 분류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해인사는 ‘해인사 장경판전 및 대장경판 보수사업’을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경관 규모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팔만대장경판은 총 1,514종 81,350판이다. 전체 81,350판 중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판이 72,610판이며,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경판은 8,632판, 중복판은 108판인데 중복판은 마모가 있거나 원래의 경판이 다른 판가에 꽂혀 있어 찾지 못했던 것을 결판으로 여기고 보판한 것이다. 해인사에서는 대장경판 조사를 통해 다른 판가에 꽂혀 있던 원판을 모두 찾아내어 실제로는 결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총 1,514종 81,350판 162,700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팔만대장경은 모든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서지적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적 권수 및 판수가

1)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2006), 141.

2)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2), 10.

많은 경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팔만대장경 중 권수 및 판수가 가장 많은 경전은 『大般若波羅蜜多經』으로 총 600권 8,003권에 이르며, 이외에 100권 이상 되는 경전은 모두 8종으로 『阿毘達磨大毘婆沙論』 200권 2,271판, 『大寶積經』 120권 1,465판, 『大智度論』 100권 1,573판, 『瑜伽師地論』 100권 1,376판, 『法苑珠林』 100권 1,696판, 『一切經音義』 100권 1,091판, 『宗鏡錄』 100권 835판이다.

본 연구는 팔만대장경 중 『阿毘達磨大毘婆沙論』 200권 2,271판을 대상으로 그 판각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내용과 구성, 팔만대장경 조성 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 및 규모, 판각에 참여한 각수와 참여 방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각수를 알아보고, 각수별 판각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자술의 특징 및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서지적 및 불교사적 연구 분야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을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상호관련 연구영역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의 내용 및 구성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毘婆沙論』, 『婆沙論』, 『婆沙』라고도 하며, 114년경 인도 健馱羅國의 迦膩色迦(Kanishka) 왕의 후원 아래 500명의 아라한이 迦濕彌羅(Kashmir)에 모여서 12년간에 걸쳐 결집한 것이라 전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說一切有部の 대표적인 논서인 『阿毘達磨發智論』을 바탕으로 설일체유부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說一切有部는 불멸후 100년경 上座部·大衆部の 근본분열 이후 200여 년 동안 20여 개의 부파로 분열한 불교교단 중 상좌부에서 분파된 부파 중 하나로 일체세간과 출세간의 존재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일체유부라고 부른다.³⁾ 설일체유부를 포함한 분열된 여러 부파들은 원시불교⁴⁾ 이래 전승되던 經藏과 律藏을 각

3) 楊惠南 지음, 원필성 옮김,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08), 179.

부파에 맞게 다소 고쳐 전승하고, 阿毘達磨(Abhidharma)라고 불리는 敎義書를 만들어 論藏(Abhidharma-pitaka)을 성립시켰는데,⁵⁾ 현존하는 아비달마 중에는 상좌부 계통, 특히 설일체유부의 문헌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설일체유부의 논서는 교학의 형성과 관련하여 크게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의 논서는 經藏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비달마적 경향을 해석 보완하고, 이어서 유부의 독특한 교설을 점차 발전시켜 정리한 논서들로 『阿毘達磨集異門足論』, 『阿毘達磨法蘊足論』, 『阿毘達磨施設足論』, 『阿毘達磨識身足論』, 『阿毘達磨品類足論』, 『阿毘達磨界身足論』, 『阿毘達磨發智論』⁶⁾이 있다.⁷⁾ 후기의 논서는 전기의 논서에서 흠어져 있는 교설들을 집대성하고, 조직적이고 일관된 체계로 서술한 것으로 『아비달마대비바사론』과 『阿毘達磨曇甘露味論』, 『鞞婆沙論』, 『阿毘曇心論』, 『阿毘曇心論經』, 『雜阿毘曇論』 등이 있다.⁸⁾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근간이 된 『아비달마발지론』은 B.C. 2세기경 迦多衍尼子(Katyayaniputra)가 지어 설일체유부의 교학을 확립시킨 宗書이다. 이 논서는 모든 법의 체계와 법의 실유성을 강조하는 설일체유부 교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설일체유부 교학의 이론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⁹⁾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발지론』의 주석에 그치지 않고, 설일체유부의 宗義 뿐 아니라 여러 소승 부파들의 敎義와 불교의 역사까지 담고 있어 흔히 아비달마 불교의 대백과전서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다른 소승 부파의 논서가 전해지지 않아 각 부파불교의 다양한 사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¹⁰⁾ 7세기 중엽

4) 석가모니 활동 당시의 불교와 열반 후 100년까지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전개시기 별로 原始·部派·大乘으로 나누어진다.

5) 金仁德, “大毘婆沙論의 阿毘達磨 特性,” 『韓國佛敎學』 6(1981), 31.

6) 이 일곱 논서는 설일체유부의 根本七論이라 하는데, 이 중 『阿毘達磨發智論』을 ‘發智身論’이라 하고 나머지 여섯 논서는 ‘六足論’이라고 한다.

7) ‘身論’, ‘足論’의 개념은 설일체유부의 몸(身)이 된다하여 身論이라 하고, 몸에 대해 손발의 역할을 한다하여 足論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후세에 붙여진 명칭이다.

8) 崔光玉, “前期 說一切有部 논서의 心不相應行法 연구,” 『韓國佛敎學』 제26집(2000), 288-289.

9) 姜明嬉, “阿毘達磨 論書의 體系와 修行論 I-說一切有部를 중심으로,” 『九山論集』 2(1998), 243-246.

당나라의 玄奘(602~664) 스님에 의해 총 200권으로 한역되었으며, 浮陀跋摩와 道泰가 한역한 이역본인 『阿毘曇毘婆沙論』은 전체 100권 중에서 현재 60권이 남아 있는데 이를 舊婆沙라 하며,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新婆沙라고 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전체 구성이 8蘊 43納息 즉 8장 4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발지론』의 구성과 같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내용을 도표화하여 <표 1>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阿毘達磨大毘婆沙論』의 권별 내용 분석

구분		권차	구분	권차
八犍度 (八蘊)	序文	1	-	1
	雜蘊	2 - 45	世第一納息	2 - 8
			結蘊	9 - 22
			智蘊	23 - 28
			業蘊	29 - 33
			大種蘊	34 - 37
			根蘊	38
			定蘊	39 - 41
			見蘊	42 - 45
	結蘊	46 - 95	不善納息	46 - 55
			一行納息	56 - 62
			有情納息	63 - 70
			十問納息	71 - 92
	智蘊	93 - 111	學地納息	93 - 96
			五宗納息	97 - 98
			他心智納息	99 - 104
			修智納息	105 - 108
	業蘊	112 - 126	七聖納息	109 - 111
			惡行納息	112 - 115
			邪語納息	116 - 117
害生納息			118 - 121	
表無表納息			122 - 123	
			自業納息	124 - 126

10) 위의 논문, 256-257.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구분		권차	구분	권차
八韃度 (八蘊)	大種蘊	127 - 141	大造納息	127 - 130
			緣納息	131 - 133
			拘牽納息	134 - 136
			執受納息	137 - 141
	根蘊	142 - 156	根納息	142 - 146
			有納息	147 - 148
			觸納息	149 - 150
			等心納息	151 - 154
			一心納息	155
			魚納息	156
			因緣納息	
	定蘊	157 - 186	得納息	157 - 161
			緣納息	162 - 165
			攝納息	166 - 173
			不還納息	174 - 182
			一行納息	183 - 186
	見蘊	187 - 200	念珠納息	187 - 191
			三有納息	192 - 194
			想納息	195
			智納息	196 - 197
見納息			198 - 200	

위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총 200권으로, 1권은 序文, 2~45권은 雜蘊, 46~92권 結蘊, 93~111권 智蘊, 112~126권 業蘊, 127~141권 大種蘊, 142~156권 根蘊, 157~186권 定蘊, 187~200권까지는 見蘊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비달마 八韃度, 즉 雜·結·智·業·大種·根·定·見 등을 각 蘊으로 한 것으로 하나의 蘊은 다시 여러 부분의 納息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문은 이 논의의 기본이 되는 『아비달마발지론』이 성립된 동기를 밝히고 있으며, 雜蘊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비구가 불도를 닦는 데 있어서 마침내 세속의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인 世第一法을 비롯한 각 부과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논하고 있다.¹¹⁾ 結蘊에서 結은 사람들을 생사의 고통 속에 결박해 두는 煩惱를 가리키는 말로, 이 蘊에서는 번뇌의 종류를 분류하고 상세히 고찰하며, 번뇌를 끊어 없애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불도를 닦는 법 등을 논한다. 智蘊은 번뇌의 滅盡은 지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지혜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도달하는 해탈 등에 대해 다섯 남식으로 나누어 논한다. 業蘊에서는 업은 행위로 번뇌와 함께 輪回의 고통에 결박하는 기본 원인이라 하고 업의 본질과 종류에 대하여 고찰한다. 大種蘊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흙, 물, 불, 바람을 일컫는 大種을 설명하고 대종과 그로 의해 만들어진 여러 물질적 존재들의 본성과 상호관계를 논한다. 根蘊에서는 根을 22가지로 나누어 그 본성과 연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定蘊에서는 根의 청정으로 얻게 되는 定에 대해 논하고 선정의 종류와 그 본성에 대해 고찰한다. 見蘊에서는 定을 얻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교도들의 그릇된 견해와 불도를 닦기 위한 명상법인 四念住와 불도의 근본 이치 등을 논하고 있다.

3.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 및 규모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각 권의 마지막 판에 새겨진 간행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 31년(1244)부터 고종 32년(1245)까지 2년 동안 모두 大藏都監에서 판각되었다. 총 200권 2,271판인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고종 31년(1244)에 200권 중 187권 2,124판이 판각되었고, 고종 32년(1245)에는 139권, 152권, 175권, 192권, 198권, 199권의 6권 68판이 판각되었다. 18권, 45권, 51권, 66권, 72권, 98권, 99권의 7권 79판은 간행기록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판각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고종 32년(1245)에 판각된 139권 이전 권차는 모두 고종 31년(1244)에 판각된 것으로 보아 같은 해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총 200권 중 대부분이 고종 31년(1244)에

11) 위의 논문, 247-258.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판각이 이루어졌으며, 고종 32년(1245)에는 6권 68판만이 판각된 것으로 보아 마무리 작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각 판의 광곽의 안팎에 새겨진 각수의 이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총 200권 2,271판의 판각이 이루어진 년도와 판각 판수 및 면수, 참여 각수를 권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별 판각 판수 및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1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文大 外
2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元呂 外
3권	11판	22면(22면)	1244	8명: 寶干 外
4권	11판	22면(21면)	1244	10명: 子龍 外
5권	11판	22면(22면)	1244	8명: 中才 外
6권	11판	22면(22면)	1244	8명: 河俊 外
7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堅就 外
8권	11판	22면(21면)	1244	10명: 玄右 外
9권	11판	22면(22면)	1244	9명: 惠元 外
10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甫沖 外
11권	11판	22면(22면)	1244	9명: 中希 外
12권	13판	26면(25면)	1244	11명: 善均 外
13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得朱 外
14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道訓 外
15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子龍 外
16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德華 外
17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崇山 外
18권	12판	24면(24면)	미상	12명: 云正 外
19권	12판	24면(24면)	1244	12명: 成柱 外
20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習存 外
21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洞圭 外
22권	12판	24면(24면)	1244	9명: 大目 外
23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法雷 外
24권	12판	24면(24면)	1244	12명: 禹二 外
25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高哲 外
26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王弼 外
27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同圭 外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28권	12판	24면(24면)	1244	12명: 光呂 外
29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得進 外
30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宝才 外
31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洪與 外
32권	13판	26면(26면)	1244	13명: 南甫 外
33권	14판	28면(27면)	1244	12명: 孝之 外
34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義兼 外
35권	11판	22면(22면)	1244	9명: 德暉 外
36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甘大 外
37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景瞻 外
38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法莊 外
39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應招 外
40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長存 外
41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學修 外
42권	12판	24면(24면)	1244	12명: 志堅 外
43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敦巾 外
44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光著 外
45권	11판	22면(22면)	미상	11명: 克夫 外
46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之失 外
47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自兼 外
48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地起 外
49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得守 外
50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加大 外
51권	11판	22면(22면)	미상	10명: 士同 外
52권	11판	22면(22면)	1244	8명: 益明 外
53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承宝 外
54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天兼 外
55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得之 外
56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天己 外
57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智周 外
58권	11판	22면(21면)	1244	10명: 洞圭 外
59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得朱 外
60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孝己 外
61권	12판	24면(24면)	1244	12명: 仁安 外
62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惠度 外
63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炎大 外
64권	13판	26면(25면)	1244	12명: 玄且 外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65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仁亮 外
66권	11판	22면(22면)	미상	10명: 千丈 外
67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宗鍊 外
68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供天 外
69권	12판	24면(23면)	1244	9명: 李丁 外
70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智延 外
71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承印 外
72권	11판	22면(21면)	미상	11명: 惠元 外
73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金延 外
74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大依 外
75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中一 外
76권	11판	22면(22면)	1244	11명: 石之 外
77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宗呂 外
78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參一 外
79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曹京 外
80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正因 外
81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公右 外
82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日京 外
83권	12판	24면(23면)	1244	9명: 禮全 外
84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得希 外
85권	11판	22면(21면)	1244	11명: 得韶 外
86권	12판	24면(24면)	1244	10명: 惠珎 外
87권	11판	22면(21면)	1244	11명: 順圭 外
88권	11판	22면(22면)	1244	8명: 德和 外
89권	13판	26면(25면)	1244	13명: 光著 外
90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孝生 外
91권	13판	26면(25면)	1244	9명: 大士 外
92권	13판	26면(25면)	1244	12명: 得進 外
93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漢丁 外
94권	12판	24면(23면)	1244	12명: 戒元 外
95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得光 外
96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孝之 外
97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道圭 外
98권	11판	22면(22면)	미상	7명: 山宝 外
99권	12판	24면(23면)	미상	9명: 金良 外
100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大之 外
101권	12판	24면(23면)	1244	8명: 學修 外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102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洪敍 外
103권	12판	24면(24면)	1244	11명: 文大 外
104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知石 外
105권	11판	22면(22면)	1244	10명: 大林 外
106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惠心 外
107권	12판	24면(23면)	1244	10명: 大應 外
108권	12판	24면(23면)	1244	11명: 宗希 外
109권	12판	24면(24면)	1244	8명: 李丁 外
110권	13판	26면(25면)	1244	13명: 戒之 外
111권	12판	24면(23면)	1244	1명: 得林
112권	12판	24면(23면)	1244	1명: 永圭(永規)
113권	15판	30면(29면)	1244	1명: 公弼(公必)
114권	15판	30면(28면)	1244	1명: 永奕
115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公希
116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敦光
117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世椿
118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允希
119권	13판	26면(24면)	1244	1명: 戒休
120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希石
121권	12판	24면(24면)	1244	1명: 白清
122권	13판	26면(26면)	1244	1명: 公禪
123권	12판	24면(23면)	1244	1명: 京柱
124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良敍
125권	12판	24면(23면)	1244	1명: 李仁
126권	13판	26면(25면)	1244	1명: 元帝
127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安時
128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申柱
129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公旦(公但, 公坦)
130권	9판	18면(18면)	1244	1명: 智令
131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就和
132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良益
133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得連
134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學如
135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仁右
136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安世
137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大升
138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希澈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139권	11판	22면(22면)	1245	1명: 得仁
140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眞京
141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時彥
142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宋迴
143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文佗(?)
144권	11판	22면(22면)	1244	1명: 晉公
145권	9판	18면(18면)	1244	1명: 得文
146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席通正
147권	11판	22면(19면)	1244	2명: 1~8판 克成, 9~11판 方守
148권	11판	22면(20면)	1244	1명: 双暉
149권	9판	18면(18면)	1244	1명: 宗淡
150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之大
151권	9판	18면(18면)	1244	1명: 邦柱
152권	10판	20면(20면)	1245	2명: 1~5판 得光, 6~10판 乞者
153권	11판	22면(20면)	1244	1명: 丁世
154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溫淸
155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自縻
156권	11판	22면(22면)	1244	1명: 光秀
157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成老
158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宗右
159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頤儒
160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永貞
161권	10판	20면(18면)	1244	1명: 有分(有粉)
162권	11판	22면(22면)	1244	1명: 金仁保
163권	9판	18면(18면)	1244	1명: 思中
164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弘甫(洪甫)
165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宋元僞
166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同之
167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林甫(僧 林)
168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朴有
169권	10판	20면(20면)	1244	1명: 景心
170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仲甫
171권	11판	22면(21면)	1244	1명: 宗悅
172권	11판	22면(22면)	1244	1명: 克成
173권	10판	20면(19면)	1244	1명: 敏才
174권	9판	18면(18면)	1244	2명: 1~3, 4(후면), 5~9판 景希, 4판(전면) 朴有

권수	관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인원
175권	10관	20면(20면)	1245	1명: 和守
176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楊祐
177권	11관	22면(21면)	1244	1명: 希甫
178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晉公
179권	11관	22면(22면)	1244	2명: 1~5, 7, 8(후면), 9~11관 世甫, 6, 8관(전면) 世夫
180권	12관	24면(22면)	1244	1명: 眞甫
181권	11관	22면(21면)	1244	1명: 道惠
182권	10관	20면(19면)	1244	1명: 東伯
183권	12관	24면(23면)	1244	1명: 金存
184권	11관	22면(22면)	1244	1명: 延甫
185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元富
186권	15관	30면(29면)	1244	1명: 宝己
187권	10관	20면(19면)	1244	1명: 韓柱
188권	9관	18면(18면)	1244	1명: 見守
189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天守
190권	10관	20면(19면)	1244	1명: 公瑩
191권	11관	22면(21면)	1244	1명: 光純
192권	12관	24면(24면)	1245	1명: 黃信
193권	12관	24면(22면)	1244	1명: 升武
194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七宝
195권	12관	24면(23면)	1244	1명: 世材
196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惠珍
197권	10관	20면(20면)	1244	1명: 文正
198권	13관	26면(25면)	1245	2명: 1~6, 8~13관 道者(東 道者), 7관 公瑩,
199권	12관	24면(24면)	1245	2명: 1관 永智, 2~11관 韓柱
200권	12관	24면(23면)	1244	1명: 仁庇
총계	2,271관	4,542면(4,434면)		

위의 <표 2>의 내용에 의거하면, 『아비달마대비바사론』 200권은 2,271관 4,542면으로 1관은 전면과 후면의 두 면에 판각이 이루어지는데, 판각이 되지 않은 빈 면을 제외한 실제 판각 면수는 총 4,434면이다. 각수들은 각 관의 광곽의 안팎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 대체로 한 관의 판각이 끝난 후 후면에

새긴 경우가 많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약 569명¹²⁾이 동원되었다.

각 권별로 참여한 각수 현황을 살펴보면 판각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데, 1권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판각한 권별 분담 방식과 1권을 여러 명의 각수가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판각한 공동 참여 방식이 있다. 권별 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광곽의 바깥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으며, 공동 참여 방식의 경우에는 광곽의 안에 새겨져 있었다. 이 두 판각 방식에 참여한 각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1~110까지의 110권은 1권당 약 10여 명의 각수가 동원되고 있는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각수가 가장 적게 참여한 권은 8명의 각수가 참여한 경우로, 3권, 5권, 6권, 52권, 88권, 98권의 각각 11판 22면, 101권의 12판 23면, 109권의 12판 24면의 총 8권이다. 참여한 각수 인원이 적은 것은 각수명이 새겨져 있지 않은 판이 있거나, 한 명의 각수가 1판 이상을 판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덟 권 중 109권은 12판 중 4판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지 않았고, 3권, 52권, 101권은 각각 3판, 5판과 98권은 1판, 6권과 88권은 2판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여덟 권 중에서 1판 이상을 판각한 각수는 中才, 光著, 德和, 戒白 4명으로, 5권은 11판 중 中才와 光著가 2판 4면씩을 판각하였는데 中才는 이외에도 71권의 1판 2면을 판각하였으며, 光著는 44권의 2판 4면, 89권, 107권의 1판 2면씩을 판각하였다. 88권은 德和가 2판 4면을 판각하였으며, 德和는 이외에 16권의 3판 6면을 판각하였다. 98권은 11판 중 戒白이 4판 8면을 판각하였고, 이외에 11권, 59권, 109권의 1판 2면을 판각하였다. 가장 많은 각수가 참여한 경우는 13명의 각수가 참여한 32권의 13판 26면, 89권의 13판 25면, 110권의 13판 25면의 총 3권으로 모두 13판에 1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1명의 각수가 1판씩을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권111~200의 90권은 권별 분담 방식으로 대부분 1명의 각수가 1권을

12) 569명의 총계 중 각수명이 마모되어 정확히 판독할 수 없는 경우는 65명이었고, 각수명이 한 글자만 새겨져 중복된 인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8명으로, 이들 73명이 포함된 총계이다. 각수명이 새겨져 있지 않은 판은 199판이다.

담당하고 있으나, 2명의 각수가 1권을 나누어 판각한 경우도 있다. 1명의 각수가 판각한 경우는 총 84권이고, 2명이 판각한 경우는 147권, 152권, 174권, 179권, 198권, 199권의 총 6권이다. 이 중 152권은 10판 20면을 得光, 乞者가 반을 나누어 5판 10면씩을 판각하고 있다. 得光은 152권의 판각 이외에도 공동 참여 방식으로 판각된 18권, 42권, 64권, 95권의 판각에도 참여하여 권당 1판씩을 담당하였다. 147권은 총 11판 19면 중 克成이 8판 14면을 판각하고 方守가 3판 5면을 판각하였으며, 174권은 총 9판 18면 중 9판 17면을 景希가 판각하고 1면만을 朴有가 판각하였는데, 朴有는 168권의 총 11판 22면 전체의 판각을 담당할 각수로 본인에게 할당된 168권의 판각을 마친 후 174권의 1면만을 분담하여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179권은 11판 22면 중 世夫가 2판 3면을, 世甫가 나머지 10판 19면을 판각하였다. 198권과 199권은 2명의 각수 중 1명이 1판만을 맡아 판각하고, 나머지 판은 다른 1명의 각수가 모두 판각한 경우로, 198권은 公瑩이 1판을 판각하고 道者가 나머지 12판 23면을 판각하였다. 道者는 마지막 13판 후면에는 東 道者라고 새기고 있는데, 東이라 새긴 것은 각수들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팔만대장경판 내에 東房 또는 東, 中房 또는 中, 兩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은 대장도감이 관장하는 공방일 가능성이 크다.¹³⁾ 199권은 永智가 1판 2면, 韓攄가 나머지 11판 22면을 판각하였는데, 韓攄는 이외에도 187권 10판 20면의 한 권을 맡아 판각하였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 참여 방식이나 권별 분담 방식의 두 방식 모두 각수는 자기가 맡은 부분의 판각이 끝나면 다른 권수에 판각에도 참여하여 판각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은 판각 활동을 한 각수는 권별 분담 방식으로 참여한 3명의 각수로 賸公이 144권의 11판 22면, 178권의 10판 20면을 판각하여 총 32판 42면을 판각하였고, 克成은 147권의 8판 14면, 172권의 11판 22면을 판각하여 총 19판 26면, 韓攄는 187권 10판 19면과 199권의 11판 22면의 총 21판 41면의 판각을 담당하였다.

13)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2), 19.

4.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각수의 판각활동

4.1 각수의 판각 참여 방식별 판각활동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약 569명의 각수가 권별 분담 방식과 공동 참여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목판의 판각은 각수 한 사람이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몇 사람이 분담하여 완성하는 경우가 있다. 판각에 몇 명의 각수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경전의 분량을 비롯해 판각의 정성과 정교도, 동원가능한 각수의 인원, 각수 개개인의 기능, 판각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¹⁴⁾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판각 참여 방식에 따라 나누어 참여한 각수 인원과 각수 1인당 평균 판각 판수를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아비달마대비바사론」 판각 방식별 참여 각수 인원 및 평균 판각 판수(면수)

참여 방식	권차(권수)	참여 각수	판각 판수(면수)	1인당 평균 판각 판수(면수)
공동 참여 방식	권 1~110(110권)	약 528명	1,294판(2,532면)	2.5판 (4.8면)
권별 분담 방식	권 111~200(90권)	91명	977판(1,902면)	10.7판 (20.9면)
합계	200권	-	2,271판(4,434면)	

위의 <표 3>에 따르면, 공동 참여 방식으로 판각이 이루어진 권1~110의 110권은 총 1,294판 2,532면의 판각에 약 528명¹⁵⁾의 각수가 참여하였는데, 각수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약 2.5판 4.8면을 담당하였고, 권111~200의 90권의 977판 1,902면의 판각에 권별 분담 방식으로 참여한 각수는 총 91명이며, 한 사람이

14)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24.

15) 528명의 총계 중 각수명이 마모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17명, 각수명을 한 글자만 새겨 중복된 인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6명으로, 이들 23명이 포함하여 528명이다.

평균 약 10.7판 20.9면을 담당하여 판각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 참여 방식으로 판각을 담당한 각수는 대체로 한 사람이 2판 4면씩을 판각하고 있고, 권별 분담 방식으로 참여한 각수는 한 사람이 평균 10판 20면 이상의 판각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권의 張次가 많은 경우 권별로 판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명의 각수가 특정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판각 활동을 수행해야 가능한 것¹⁶⁾으로 이들의 판각량으로 보아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대장경 판각에 있어서 그 활동이 활발하였던 전문 각수로 여겨진다.

4.2 주요 각수별 판각의 특징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을 그대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삼아 宋板, 契丹大藏經을 對校하고 釋教錄을 두루 참고하여 본문의 誤脫과 錯寫를 철저히 校補하여 조성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동양의 한역대장경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비해, 인쇄문화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彫板의 精刻度가 초조대장경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된다.¹⁷⁾

이에 따라 팔만대장경 판각의 특징 및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문 각수 91명을 대상으로, 판각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阿·心·沙·彼·道·觀·後·佛·我·初의 10개 글자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각 글자별로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를 선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어, 각수별 각자술의 특징, 정교도 및 우열을 살펴보고, 특징 및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2.1 '阿'자 판각의 사례

‘阿’자는 ‘β(언덕 부)+可(옳을 가)’의 형태로 ‘β’와 ‘可’의 배자 모양과 ‘β’의









16) 최연주,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2004), 90.

17) 千惠鳳, “高麗時代의 典籍,” 『미술사학연구』 제184호(1989. 12), 52.

위치와 모양에 따라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β’와 ‘可’의 결합된 형태가 β가 可에 비해 위쪽으로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β와 可의 윗부분의 높이를 맞추어 판각한 경우는 91명의 각수 중 安時(127권), 智令(130권), 宝己(186권), 仁庇(200권)의 각수 4명뿐이었다. 宗淡(149권), 之大(150권), 碩儒(159권)가 새긴 ‘阿’자의 경우는 β가 可에 비해 두드러지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可자의 ‘口(입 구)’가 크게 새겨지는 등 배자 균형이 맞지 않아 판각이 조악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β’의 형태가 바르게 새겨져 있는 경우보다 ‘卍(병부 절)’과 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β의 형태로 새겨진 경우는 永奕(114권), 敦光(116권), 安時(127권), 就和(131권), 文佗(?)(143권), 宗淡(149권), 丁世(153권), 元宋儒(165권)의 8명의 각수의 판각에서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阿	각수(권차)	특징
	道惠(181권)	β가 ‘卍’의 형태로 可에 비해 위쪽에 새겨진 경우
	希甫(177권)	
	宗淡(149권)	β가 可에 비해 두드러지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之大(150권)	
	宝己(186권)	β와 可의 윗부분의 높이를 맞추어 새긴 경우
	仁庇(200권)	
	安時(127권)	β의 형태로 새겨진 경우
	韓拄(187, 199권)	





<그림 1> ‘阿’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2 ‘心’자 판각의 사례

‘心’자는 세 점의 위치나 모양, 아래 획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굽어있는 모양, 아래 획의 빠침 부분 모양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각수가 새긴 ‘心’자라 하더라도 모양이나 획의 두께가 일정치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각수별 특징을 살펴보면, 세 점의 위치와 크기, 아래 획의 굽은 정도와 빠져 올라가는 부분의 강약, 첫 번째 짙는 점과 아래 획과의 간격 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心’자의 첫 번째 점과 아래 획을 붙여서 바로 이어지게 판각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公弼(113권), 公禪(122권), 安時(127권), 智승(130권), 得連(133권), 希澈(138권), 得文(145권), 得光(152권), 宗右(158권), 碩儒(159권), 永貞(160권), 弘甫(164권), 宋元備(165권), 景心(169권), 仲甫(170권), 和守(175권), 東伯(182권), 宝己(186권), 光純(191권), 文正(197권) 등 20명의 판각에서 나타난다.

둘째, 아래 획의 마지막 빠침 부분이 강하게 판각되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점 사이로 두드러지게 뾰족하고 길게 올라와 있는 경우는 公希(115권), 良敝(124권), 安時(127권), 仁右(135권), 眞京(140권), 得文(145권), 克成(147, 172권), 邦柱(151권), 宗右(158권), 景心(169권), 和守(175권), 希甫(177권), 金存(183권), 元富(185권), 韓柱(187, 199권), 見守(188권) 등 16명이 판각한 글자에서 보인다(그림 2 참조).

心	각수(권차)	특징
	公弼(113권)	첫 번째 점과 아래 획을 붙여 판각한 경우
	智승(130권)	
	安時(127권)	아래 획 빠침이 길게 위로 올라온 경우
	得文(145권)	





<그림 2> ‘心’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3 ‘沙’자 판각의 사례

‘沙’자는 ‘彳(물 수)+少(적을 소)’의 형태로 ‘彳’변의 모양이나 위치, ‘彳’와 ‘少’가 배자된 모양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각수별로 두드러지는 판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彳’의 마지막 획의 길이가 길게 올라오는 경우로 允希(118권), 白淸(121권), 公旦(129권), 智命(130권), 就和(131권), 學如(134권), 安世(136권), 眞京(140권), 文佗(?)(143권), 克成(147, 172권), 宗淡(149권), 得光(152권), 溫淸(154권), 宗右(158권), 永貞(160권), 景心(169권), 世甫(179권), 韓柱(187, 199권), 升武(193권), 世材(195권), 文正(197권) 등 21명이 판각한 글자에서 나타난다. 특히 白淸(121권), 宗淡(149권)이 판각한 ‘沙’자의 경우는 ‘彳’의 마지막 획이 길게 올라가 ‘小’의 왼쪽 점과 붙어 판각이 되었다.

둘째, ‘少’의 오른쪽 점이 아래 획의 바깥 아래쪽에 새겨진 경우로 得光(152권), 丁世(153권), 碩儒(159권), 永貞(160권), 眞甫(180권) 등 5명의 판각에서 보인다 (그림 3 참조).

沙	각수(권차)	특징
	白淸(121권)	彳 마지막 획이 길게 치켜 올라간 경우
	宗淡(149권)	
	丁世(153권)	少 오른쪽 점이 아래 획의 바깥 아래쪽에 새겨진 경우
	永貞(160권)	





<그림 3> ‘沙’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4 ‘彼’자 판각의 사례

‘彼’자는 ‘彳(조금 걸을 척)+皮(가죽 피)’의 형태로 각수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 점은 주로 ‘皮’자의 새김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皮’ 중 ‘又’의 새김에서 ‘尸’자의 위에서 내려오는 획에 이어서 바로 연결하여 새기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公弼(113권), 允希(118권), 戒休(119권), 公禪(122권), 京柱(123권), 良敍(124권), 李仁(125권), 元帝(126권), 時彥(141권), 克成(147, 172권), 自麤(155권), 光秀(156권), 思中(163권), 同之(166권), 朴有(168권), 仲甫(170권), 景希(174권), 世夫(179권), 東伯(182권), 延甫(184권), 升武(193권), 世材(195권), 惠珎(196권), 文正(197권) 등 24명의 판각에서 보인다.

둘째, ‘皮’ 중 ‘尸’의 윗변의 마지막 안으로 꺾이는 획이 길게 이어져 ‘又’의 오른쪽 윗부분에 닿게 판각된 경우로 永奕(114권), 敦光(116권), 允希(118권), 宗淡(149권), 丁世(153권), 成老(157권), 同之(166권)등 7명의 판각에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彼	각수(권차)	특징
	公弼(113권)	尸 위에서 내려오는 획에 又를 바로 연결하여 새기고 있는 경우
	公禪(122권)	
	永奕(114권)	尸 윗변 마지막 안으로 꺾이는 획이 길게 이어져 又의 오른쪽 위에 닿은 경우
	宗淡(149권)	

<그림 4> ‘彼’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5 ‘道’자 판각의 사례

‘道’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首(머리 수)’의 형태로 ‘首’의 새김에서 각수별로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다. ‘首’의 세로로 긋는 두 획을 길게 판각하여 ‘辵’의 아래 획에 닿도록 새긴 경우로 得林(111권), 敦光(116권), 希石(120권), 白淸(121권), 元帝(126권), 安時(127권), 良益(132권), 眞京(140권), 時彥(141권), 之大(150권), 永貞(160권), 宋元偁(165권), 宗悅(171권), 和守(175권), 升武(193권), 七宝(194권), 惠珵(196권), 永智(199권) 등 18명의 판각에서 보인다(그림 5 참조).

道	각수(권차)	특징
	得林(111권)	首의 두 세로 획을 길게 판각하여 辵 아래 획에 닿은 경우
	惠珵(196권)	

<그림 5> ‘道’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6 ‘觀’자 판각의 사례

‘觀’자는 ‘窺(황새 관)+見(볼 견)’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窺’이 ‘見’에 비해 위쪽으로 올라오게 판각되어 있는데, 각수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窺’자의 ‘艹’변을 판각할 때에 가운데 획을 연결하지 않고 따로 나누어 새기고 있었는데, ‘艹’변이 이어져 있는 경우는 碩儒(159권), 永智(199권)의 각수 2명의 판각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觀’자의 새김에서 각수별로 각자술이 정교하지 못한 경우는 ‘窺’ 부분의 두 개의 ‘口’와 ‘艹’변의 새김에서 나타나는데, 두 ‘口’를 붙여 새겨 ‘𠂔’의 형태로 보이는 경우는 宗淡(140권), 升武(193권), 文正(197권) 3명의 판각에서 보이며, ‘艹’변과 아래의 두 ‘口’를 바로 이어서 판각한 경우는 得文(145권), 成老(157권)

의 판각에서 나타난다(그림 6 참조).

觀	각수(권차)	특징
	宗淡(140권)	□□를 붙여 ‘𠄎’의 형태로 판각한 경우
	文正(197권)	
	得文(145권)	卍와 □□를 이어서 판각한 경우
	成老(157권)	

<그림 6> ‘觀’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7 ‘後’자 판각의 사례

‘後’자는 판각의 각수별 차이점은 ‘ㄹ’와 ‘女’의 모양과 ‘ㄹ’와 ‘女’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ㄹ’의 세 번째 획인 마지막 점을 새기지 않고 바로 ‘女’을 이어서 판각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得林(111권), 永圭/永規(112권), 公彌/公必(113권), 永奕(114권), 公希(115권), 敦光(116권), 世椿(117권), 允希(118권), 戒休(119권), 希石(120권), 公禪(122권), 京柱(123권), 良敍(124권), 李仁(125권), 元帝(126권), 申柱(128권), 公杄(129권), 智令(130권), 良益(132권), 得連(133권), 仁右(135권), 安世(136권), 溫淸(154권) 등 23명의 판각에서 보인다. 특히 敦光(116권), 元帝(126권), 良益(132권), 得連(133권), 仁右(135권)의 판각은 ‘ㄹ’와 ‘女’의 배자, 획의 새김 등 판각이 거칠고 글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정교하지 못한 판각이 두드러지는 경우이다.

둘째, ‘女’자를 새길 때 두 번째 획인 가로 획을 새기지 않은 경우로 宋迴(142

권), 文佗(?)(143권), 席通正(146권), 双暉(148권), 宗淡(149권), 之大(150권), 敏才(173권), 世夫(179권), 道惠(181권), 東伯(182권), 金存(183권), 延甫(184권), 元富(185권) 등 13명의 판각에서 나타난다(그림 7 참조).

後	각수(권차)	특징
	永圭/永規 (112권)	호 세 번째 획인 점을 새기지 않고 ㄷ을 이어서 새긴 경우
	公弼/公必 (113권)	
	元帝(126권)	
	良益(132권)	
	之大(150권)	ㄷ 두 번째 가로 획을 새기지 않은 경우
	敏才(173권)	

<그림 7> ‘後’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8 ‘佛’자 판각의 사례

‘佛’자는 ‘亻(사람 인)+弗(아닐 불)’의 형태로 ‘亻’의 위치와 ‘弗’의 모양에 따라 각수별로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佛’자는 대부분 ‘弗’의 아래로 내리는 두 획의 길이가 ‘亻’보다 길게 판각되어 있는데, ‘亻’과 ‘弗’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경우는 成老(157권) 1명의 판각에서만 보인다.

둘째, 각수에 따라 ‘弗’의 아래로 내려 긋는 두 획이 모두 일직선으로 판각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白淸(121권), 公禪(122권), 邦柱(151권), 有分/有粉(161권),

同之(166권), 敏才(173권), 元富(185권)의 7명의 판각에 보인다(그림 8 참조).

佛	각수(권차)	특징
	仁右(135권)	弗의 내려 굽는 두 획이 丨보다 긴 경우
	之大(150권)	
	成老(157권)	丨과 弗 내려 굽는 획의 길이가 유사한 경우
	白淸(121권)	弗 내려 굽는 두 획이 일직선으로 새겨진 경우
	邦柱(151권)	


<그림 8> ‘佛’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9 ‘我’자의 판각 사례

‘我’자의 각수별 판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我’자는 대부분이 ‘戈’ 부분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획을 과감하게 길게 새기고 있는데, 이는 智令(130권), 金仁保(162권), 眞甫(180권), 道惠(181권), 韓柱(187, 199권), 黃信(192권) 등의 판각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각수별로 ‘我’의 첫 번째 획을 길게 판각한 경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戒休(119권), 希石(120권), 文佗(?)(143권)의 3명이 판각한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我	각수(권차)	특징
	智愼(130권)	ㄱ 아래로 굽는 획을 길게 새긴 경우
	金仁保(162권)	
	戒休(119권)	첫 번째 획을 길게 새긴 경우
	希石(120권)	

<그림 9> ‘我’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4.2.10 ‘初’자 판각의 사례

‘初’자는 ‘ㄸ(옷 의)+刀(칼 도)’의 형태로 ‘ㄸ’와 ‘刀’ 각각의 새김이나 배자 형태가 각수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ㄸ’ 판각 시 각수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ㄸ’의 두 번째 꺾이는 획을 한 번에 연결하여 새기지 않고 두 획으로 나누어 새긴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는 得林(111권), 公彌/公必(113권), 永奕(114권), 敦光(116권), 世椿(117권), 戒休(119권), 希石(120권), 京柱(123권), 智愼(130권), 晉公(144, 178권), 溫淸(154권), 光秀(156권), 眞甫(180권), 道惠(181권), 東伯(182권), 金存(183권), 元富(185권), 天宇(189권), 公瑩(190권), 永智(199권) 등 20명 각수의 판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ㄸ’를 ‘ㄸ(보일 시)’의 형태로 마지막 획을 생략하여 새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白淸(121권), 公禪(122권), 京柱(123권), 良敍(124권), 安時(127권), 公坦/公但/公坦(129권), 智愼(130권), 敏才(173권), 公瑩(190권) 등 9명의 판각에서 보인다.

둘째, ‘刀’의 새김은 대부분 ‘ㄸ’와 ‘刀’의 윗변 가로획이 평행하게 판각되었는데, ‘刀’의 첫 번째 꺾이는 획이 오른쪽 위로 치켜 올라가 두드러지게 새겨진 경우가

世椿(117권), 大升(137권), 景心(169권) 등의 판각에서 보인다(그림 10 참조).

初	각수(권차)	특징
	永奕(114권)	初 두 번째 꺾이는 획을 두 획으로 나누어 새긴 경우
	希石(120권)	
	安時(127권)	'初'의 형태로 새긴 경우
	智愼(130권)	
	大升(137권)	刀 꺾이는 획이 오른쪽 위로 치켜 올라간 경우
	景心(169권)	

<그림 10> '初' 판각 각수 및 판각의 특징

5. 결 론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을 바탕으로 하여 설일체유부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러 소승 부파들의 敎義와 불교의 역사까지 담고 있어 아비달마불교의 대백과전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팔만대장경의 저본은 현장 스님이 한역한 것으로 전체 200권의 구성이 8蘊 43納息으로 되어 있어 아비달마 八捷度, 즉 雜·結·智·業·大種·根·定·見의 8蘊을 다시 여러 부분의 남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

2)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총 200권 2,271판이 고려 고종 31년(1244)부터

32년(1245)까지 2년 동안 모두 大藏都監에서 판각되었으며, 고종 31년(1244)에는 187권 2,214판, 32년(1245)에는 6권 68판이 판각되었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실제 판각 면수는 총 4,434면으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약 569명의 각수가 판각에 참여하였다.

권별로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권1~110은 1권을 여러 명의 각수가 맡아 판각한 공동 참여 방식으로, 권111~200은 1권을 한 사람이 맡아 판각한 권별 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동 참여 방식의 경우 1권당 적게는 8명, 많게는 13명의 각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권별 분담 방식은 대부분 1권을 1명의 각수가 맡아 판각하였고, 90권 중 6권은 2명의 각수가 나누어 판각하였다. 각수의 판각 활동을 살펴보면, 자기가 맡은 부분의 판각이 끝나면 다른 권수에 판각에도 참여하여 판각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각수는 諝公이 144권의 11판 22면, 178권의 10판 20면을 판각하여 총 32판 42면을 판각하였고, 克成은 147권의 8판 14면, 172권의 11판 22면을 판각하여 총 19판 26면, 韓柱는 187권 10판 19면과 199권의 11판 22면의 총 21판 41면의 판각을 담당하였다.

3)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 중 권별 분담 방식으로 참여한 각수는 총 91명으로 이들은 한 사람이 평균 10판 20면 이상을 판각하고 있는데, 이들의 판각량으로 보아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판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문 각수로 여겨진다. 이들 91명의 전문 각수를 대상으로 팔만대장경 판각의 특징 및 성격을 알아보고자, 阿·心·沙·彼·道·觀·後·佛·我·初의 10개 글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수별 각자술의 특징 및 성격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개의 글자는 91명의 각자 다른 각수가 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각수에 따라 획의 굵기와 기울임, 글자의 크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글자의 결합별 배자 균형, 점을 찍은 모양, 빼침이나 꺾이는 획의 모양에 따라 각수별로 판각의 습관이나 각자술의 정교도 및 우열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각 글자별로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자의 결합법 배자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阿’자는 대체로 ‘β’가 ‘口’의 형태로 새겨져 있으며 ‘可’에 비해 위쪽에 새겨지고 있다. 획수가 적은 ‘心’자는 한 명의 각수가 판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 점의 위치, 아래 획의 빠침, 획의 굵기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아래 획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굽어있는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初’는 ‘刀’의 첫 번째 꺾이는 획이 오른쪽 위로 치켜 올라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둘째, 각수별로 판각을 쉽게 하기 위해 획을 이어서 새기거나 한 획을 생략한 경우, 한 획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을 두 획으로 끊어서 판각한 경우가 있다. ‘沙’자는 ‘夕’의 마지막 획이 길게 올라와 ‘少’의 첫 획과 이어지게 판각된 경우가 나타나며, ‘彼’는 ‘尸’자의 위에서 내려오는 획이 ‘又’의 윗변과 이어져 한 번에 새긴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道’자는 ‘首’의 세로 두 획이 길게 ‘辶’의 아래 획에 닿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觀’자는 ‘艹’의 가운데 획을 연결하지 않고 나누어 새기고 있으며, ‘藿’자 중 가운데 두 ‘口’를 붙여 새겨 ‘𠂇’의 형태로 새긴 경우와 ‘艹’와 두 ‘口’를 바로 이어서 판각한 경우가 있었다. ‘後’자는 ‘彡’의 세 번째 획은 마지막 점을 새기지 않고 바로 ‘女’을 이어서 판각한 경우와 ‘女’의 두 번째 획인 가로 획을 새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初’자는 ‘丩’ 판각 시 두 번째 꺾이는 획을 한 번에 연결하여 새기지 않고 두 획으로 나누어 새긴 경우와 ‘丩’를 ‘丩’의 형태로 마지막 획을 생략하여 새기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각수별 판각 습관에 따라 획의 새김에서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로, ‘沙’자 중 ‘少’의 오른쪽 점이 아래 획의 바깥 아래쪽에 새겨진 경우와 ‘佛’자의 새김에서 ‘弗’의 아래로 내리는 두 획이 모두 일직선으로 판각된 경우, ‘我’자의 첫 번째 획이 길게 판각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 姜明嬉. “阿毘達磨 論書의 體系와 修行論 I-說一切有部를 중심으로.” 『九山論集』 제2집(1998).
-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2).
- 金仁德. “大毘婆沙論의 阿毘達磨 特性.” 『韓國佛敎學』 제6집(1981).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楊惠南 지음, 원필성 옮김.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08.
- 千惠鳳. “高麗時代의 典籍.” 『미술사학연구』 제184호(1989. 12).
- 崔光玉. “前期 說一切有部 논서의 心不相應行法 연구.” 『韓國佛敎學』 제26집(2000).
-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2006.
- 최연주.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2004).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서울: 景仁文化社, 2008.

